

자료소개

소개 : 박정애

한무숙은 1918년 종로구 통의동에서 태어났고 1948년에 국제신보사 장편 소설 모집에 「역사는 흐른다」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여, 미국에서도 번역·출판된 노작 「만남」을 비롯, 전집 열 권(1992년, 을유문화사)에 해당하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1992년 별세한 작가이다. 작품의 양과 질에 비하여 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1940년 경성일보 내의 신시대 사 장편 공모에 당선되었으나 사장되었던, 한무숙의 일본어 소설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무숙의 수필, 「불씨」를 보면 “등불 드는 여인”의 탄생에 관련된 삽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그곳(변소: 인용자)에는 반은 찢어져 사용된 잡지가 한 권 매달려 있었다. 오랜만에 동강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을 주워 읽는데 장편 소설 모집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1,500매, 마감이 두 달 남직 남아 있었다. 불현듯 쓰고 싶다는 생각이 불길같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싶다는 욕망은 팽개친 지 오래였다. 그것은 이미 난도질당하고 짓몽개진 욕망이었다. 그림은 제작 과정부터가 나에게서는 너무나 괴만하고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공간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

그런 사치를 언감생심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글을 쓰는 것은 아주 다르다. 종이와 연필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서 종이를 구해 오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쓴단 말인가. 내 마음은 조바심으로 탔다.

내 열망은 뜻밖에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아버님이 재혼을 하실 때까지 속절없이 종가 살림을 맡아야 할 처지였는데 남편이 고랑포로 전근이 된 것이다. …(중략)…

짐을 다 정리도 하기 전에 남편은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원고지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원고지는 뒤에 쓰려 하느냐고 하면서 그는 몇 장이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2,000장쯤—.”

“2,000장?”

그는 너무나 놀랐다. 결혼 후 처음 하는 부탁이었으나 남편은 아주 질이 나쁜 원고지를 겨우 반 첩(50 장)밖에 사오지 못했다. 전시의 종이난으로 그것도 간신히 구했다는 것이었다.

마감 날짜가 촉박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시험지를 구해와서 국민학교 1학년 어린이가 쓰는 공책같이 바둑판 같은 칸을 쳤다. 등사판과 등사기는 조합의 비품을 잠깐 빌렸다. 그때 내게는 만년필이 없었다. 잉크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극도의 결핍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꼭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이 가사를 제쳐놓고 글을 쓸 수는 없었다. 낙선일 것이라고 지레 정해 놓았으므로 아무도 모르게 써야 하기도 했지만 나는 글을 누워서 써야 했던 것이다. 나의 신역은 여전히 고달팠다. 우리가 이사오자마자 궁급해 하시면서 아버님이 오셔서 오래 머무신데다가 적성에 사는 남편의 내종 누님의 서방님과 두 자녀의 점심 식사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나무를 건너 통근과 통학을 하고 있었다.

절인 배추 모양으로 풀이 죽도록 피로한 몸으로 밤에까지 앉아 있을 체력이 없어 나는 모로 누워 종이를 벽에 대고 연필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아버님도 남

편도 내종 시늬님 맥 삼부자도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몰랐다. 한 달 동안을 죽자 살자 쓴 글은 마감을 사흘 앞두고 <신시대(新時代)>사로 발송되었다.

나의 미숙한 작품 “등불 드는 여인”은 그때 행운스럽게도 더 잘 쓰는 이가 옴모를 하지 않았던 덕택에 당선이 되었다. 당선 통지를 받아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통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우리 둘(남편과 나)만의 비밀에 부쳤다. 수상 시일을 알려 왔지만 나는 참석할 수가 없었다. 고랑포에서 서울까지는 그때 거의 하루해가 걸렸다. 백여 리 안팎의 거리였으나 장단까지 버스를 타고 장단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야 하는데 표사는 데 다섯 시간도 걸리고 여섯 시간도 걸리는 형편이었다. 아버님과 내종 시늬님 맥 식구들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심사위원 중에 유진오 선생이 끼어 있었던 것만 알았을 뿐 다른 분은 누구셨는지 모른다. 돌 하나 던지고 만 격으로 나의 문학생활은 그만 그것으로 끊어져 버렸다.

.....「불씨」, 『한무숙 문학전집 8권: 내 마음에 뜬 달』(을유문화사, 1992), pp.35-36.

천성적인 작가 기질을 엿보이는 위의 회고는 아래에 소개하는 부(夫) 김진홍 옹의 <“등불든 여인” 일본어 책 발간의 연유>라는 글과 두어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억의 본질 나아가 문학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는 재미있는 대목이다.

아내 “한무숙”이 별세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나 8년째로 접어든다. 하루하루가 지루하면서도 7년이란 세월은 번개같이 지나갔다. 본인의 유산을 전부 사회복지와 문화창달사업에 써 달라는 유언으로 “한무숙재단”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념관을 설치하고 한무숙문학상을 위시하여 문화창달과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왔던 바 그동안 유고정리를 하다보니 다 써여가는 오랜 원고지가 발견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등불든 여인”이 있었다. 1943년(소화 18년)(57년 전)에 쓴 글이 발견

된 것이다. 이 장편은 24세 때 일본시대여서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고 “신시대” 사 (경성일보 내에 있는) 현상 장편소설 모집에 응모하여 당선되어 상을 받은 작품이다. 그 “신시대” 사는 폐사가 되어 출판도 못하고 원고도 없어졌던 것이 이제 발견되었다. 그때 그 원고지는 내가 직접 “가리방”으로 줄을 쳐서 만들어 준 것이었다. 옆에 “금강용천”(김진홍 옹의 일본식 이름: 인용자)이라고 쓴 것이 보인다. 이때 아내 한무숙은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 쓴 것이었고 수상하러 갔더니 너무나 젊은 여학생같이 보여서 본인이 오라고 쫓아 보낸 일이 있었다. 본인은 서양화를 공부하려고 영국 유학준비를 마쳤던 바 부모의 결혼권유로 결혼하게 되어 낙심한 나머지 문인전환을 결심하고 최초로 응모 당선되었던 것이어서 문학 입문의 최초의 작품이라서 유달리 감회가 깊어 이 원고를 그대로 복사하여 발간하게 이르른 것이다. 일본어의 어휘, 글씨 솜씨가 드물게 뛰어난 것이 보인다. 기념으로 삼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원고지 칸을 누가 쳤는가, 시상식에 갔는가 아예 갈 마음을 먹지 못했는가 의 문제에서 본인과 남편의 기억이 다른 게 확인된다. 어쨌거나 부인이 별세한 지 8년만에 집을 개축하다 발견한 낡은 원고뭉치를 그대로 썬하지 않고 일본의 한 서방(書房)에서 2000년 1월 1일 출판하게 하여 57년만에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게 한 팔순 노인의 사부곡(思婦曲)은 눈물겨운 바 있다.

金屋雨窓

〃 灯を待つ女。
 第一回
 一
 N 箱切つてこの金屋にある金屋では當主の
 妻の箱切つてさうなと云ふに。
 十七にふと下嫁の玉枝は騒いけけけと
 せつあつてなながもう二人の妻に美
 しくさうなふと松の雪の血から今居
 火と腹をだけに喰いに。
 一 也れ人。何を牛を焼かせるとさうし
 先が腹の台一面に並べてある器用な手
 上氣と腹の牛をさうとさうとさうと
 さうにさういふのを一人は思はず
 〃 夫あ人。おあえんは何をさうなとさう
 けえ。さうとさう人はさうし
 〃 さうとくれよ。おあえんはさうとさう
 かはし

下に下りてしと相争は播はが ^{上登江流} 流ける
 一に意の旦那様 ^{律家} 正立な ^向 多様也
 也 十五年も前の先伏様 ^{お約束} ともお約束也
 ありし ^あ 一と様 ^ふ なるので ^あ 縁
 談 ^は 最 ^お 下 ^ふ 前 ^つ とも ^の と ^論 の ^を 取 ^と
 取 ^つ とも ^つ して ^し
 下りの ^様 が ^多 多 ^を かけ ^ら
 何 ^を ^若 ^さ ^と ^油 ^と ^慶 ^と ^所 ^ん ^ど ^え ^早
 く ^そ ^の ^性 ^登 ^取 ^つ ^み ^ふ ^し
 一 ^ほ ^ふ ^し
 と ^彼 ^女 ^は ^結 ^成 ^の ^筆 ^を ^應 ^じ ^矢 ^ふ ^流 ^て ^つ ^け ^ら
 こ ^し ^た ^ら ^な ^そ ^の ^様 ^を ^追 ^つ ^と ^せ ^ず ^玉 ^様 ^は ^唇
 と ^さ ^つ ^く ^続 ^ん ^で ^器 ^用 ^に ^新 ^し ^磨 ^り ^つ ^け ^て ^お ^は ^ら
 が ^そ ^の ^瞳 ^は ^好 ^ま ^な ^に ^さ ^ふ ^く ^と ^輝 ^け ^る ^の
 た ^彼 ^女 ^は ^今 ^と ^り ^あ ^日 ^が ^女 ^と ^く ^腹 ^を ^し ^か
 った ^死 ^婚 ^の ^昌 ^鑑 ^は ^彼 ^女 ^の ^女 ^人 ^で ^あ ^る ^わ ^け
 て ^よ ^う ^か ^つ ^に ^が ^夏 ^の ^体 ^み ^に ^あ ^つ ^た ^お ^女
 が ^百 ^餘 ^の ^女 ^を ^取 ^つ ^て ^お ^る ^傍 ^に ^あ ^つ ^て ^来 ^て
 った ^さ ^ら ^取 ^つ ^て ^何 ^も ^す ^ん ^だ ^は ^顔 ^に ^つ ^け ^る
 の ^か ^い ^し

と 乳母は意の抜けた口に手を握りて笑ふ。
 彼は「い肩を叩きと解かして、女共を返
 した。保意で仕方がないのである。
 「お嫁さんは、何も食べないって本當とし
 「そんな事信じないよんよし
 「でも、お母さんは何にも食べないからい
 か。あ、うん。これ、いふに、地を、一に
 祖母様に叱ふからでえう。僕、他の血に
 括つてあてあげよう。し
 彼は朝、その「これ、いふに、地を、しに手を握
 へて、祖母に叱ふたのである。乳母は、泣いて
 うる。止めた。女達の肩にも笑ひ解かした
 。が、乳母は思はず泣いた。十年の舞一舞
 の歓迎の心が嬉しかったのである。
 その日の朝、お嫁さんは、いふに、いふに、いふに、三
 十年も使つておた鏡を落し、いふに、いふに、いふに、
 。鏡の屋の彼女には、いふに、いふに、いふに、いふに、
 兆のやうに思はれた。で、彼女の不機嫌は
 新い夫婦の如き、いふに、いふに、いふに、いふに、
 った。その不機嫌の掃子が、乳母の心を痛めた。

